

벤처기업 절반, 기술력 세계 최고 자부

2003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내수시장 위축으로 수익성 주춤

이번 조사에서 조사기업의 50.8%가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이라고 응답해 우리 벤처기업들의 자신감을 반영해 주었다. 그러나 고질적인 자금난은 여전히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상(50.5%)의 업체가 '어렵다' 고 응답했고, 27.5%가 '보통', 22.1%가 '좋다' 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청(청장 柳昌茂)과 벤처기업협회(회장 張興淳)는 한국벤처연구소(소장 韓正和)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3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11월 26일 발표하였다.

'2003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는 벤처기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8,000여 벤처기업(6월말 현재 벤처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온라인(벤처넷 www.venturenet.or.kr)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에는 총 5,791개사가 응답하였다. 이 자료는 응답이 부실한 31개사를 제외한 5,760개사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내용은 ▲벤처기업 일반정보 ▲경영자 및 조직의 특성 ▲경영실적 ▲경영 및 자금관련 사항 ▲기술특성 및 지적재산권 현황 ▲해외진출 현황 등 총 10개 카테고리, 99개 문항이다.

매출액은 증가, 산업 수익성은 다소 악화

먼저 벤처기업이 거둔 경영성과의 측면을 살펴보면, 2002년도 평균매출액은 68억원으로 2001년 대비 19.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은 작년과 유사한 4.1%로 나타났다.(그림1 참고)

2002년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도(21.7%)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일반기업 평균(중소기업 10.2%, 대기업 7.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이익률의 경우, 제조벤처 분야는 5.3%로 전년도(2001년 4.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서비스는 0.5%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분야의 수익성 악화는 내수시장의 위축, 시장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매출액은 2001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 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매출액 성장률은 29%이고 영업이익률은 8.5%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재무상태는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증가율에 비하여, 부채증가율이 높고 자기자본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1 참고)

이는, 벤처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못하고 전환사채, 대출 등을 통한 자금차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금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아

벤처기업의 재무구조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39.2%에 불과했던 일반 제조중소기업과 비교해서는 부채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금사정에 대한 인식으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는 50.5%, 보통 27.5%, 좋다고 응답한 업체는 22.1%로 조사되었다. 자금사정이 좋다 34.2%, 보통 46.2%로 응답하였던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2003년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2 참고)

또 정부정책자금 활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줄어들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답한 벤처기업의 11.9%인 686개 기업이 2002년도에 정

그림 1 |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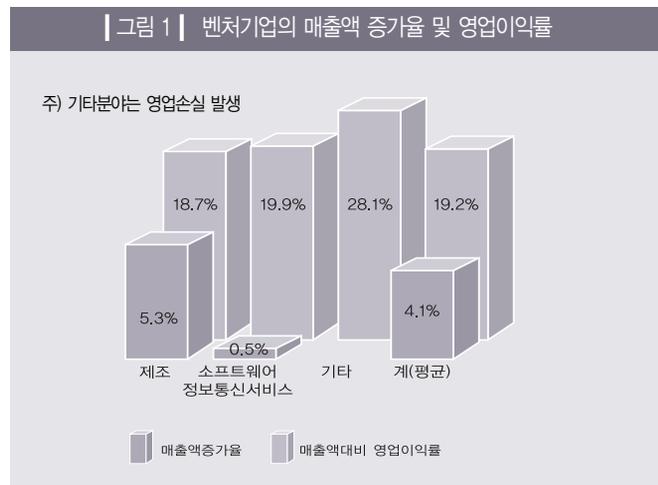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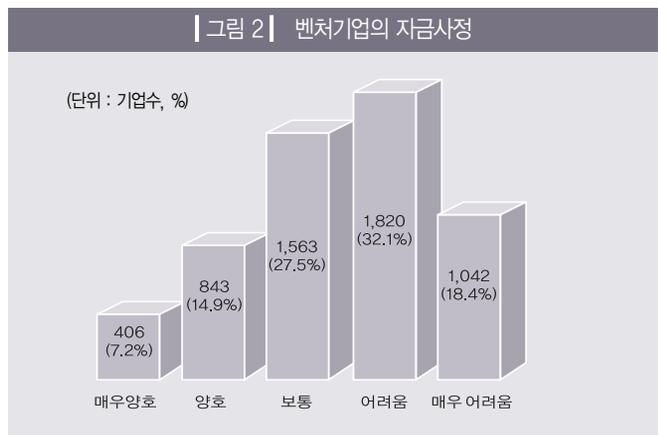


표 1 | 벤처기업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증 가 율
대차대조표	자산	5,733	6,480		13.0%
	부채	2,770	3,503		26.5%
			주1)105.5%	128.2%	
자기자본	2,625	2,733		4.1%	
		주2)45.8%	42.3%		

주1)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100
주2)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100

그림 2 | 벤처기업의 자금사정



부정책자금을 활용하였으며, 업체별로 평균 35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도에는 응답벤처기업의 44.5%인 2565개 기업이 정부정책자금을 활용하였으며, 업체별로 평균 2.4억원을 활용한 바 있어 2002년 들어 정부정책자금의 수혜규모 및 해당 기업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참고)

조사기업의 50.8%가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한편 벤처기업당 평균 종업원수(정규직 기준)는 2002년 말 현재 37.5명(총 고용인원 32만 9000명)으로 2001년 33.4명에 비해 약 4명 정도 증가했다. 2003년에는 40.6명으로 전망, 벤처기업의 고용

표 2 |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

(단위 : 명)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전망
평균 종업원 수	33.4	37.5	40.6

※ 2003년 전망에 대해서는 40.6명으로 응답

규모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고용효과는 국내 총 종업원 수(11,754 천명, 음식/숙박/부동산 등 제외)대비 약 2.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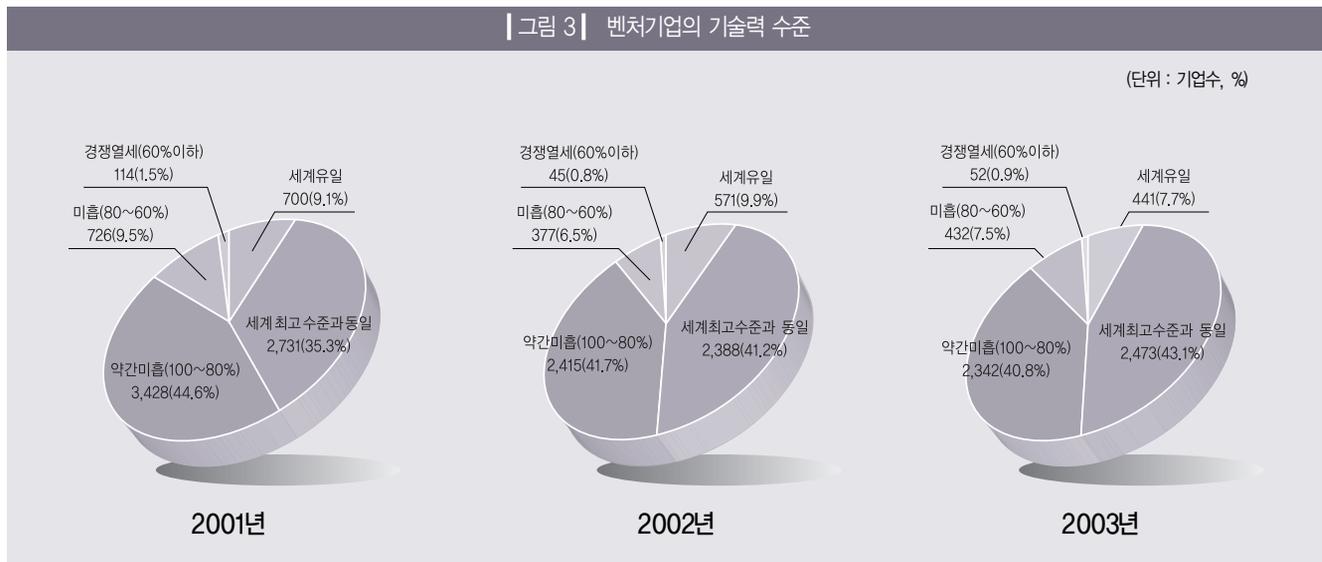
기술력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벤처기업들의 50.8%가 자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자사 기술력이 세계수준과 동일하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의 비율이 2001년 35.3%, 2002년 41.2%, 2003년 43.1%로 조사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벤처기업들이 자신의 기술력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 조직으로는 응답 벤처기업의 58.2%가 기업부설연구소를, 28%가 R&D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평균 개발인력 수는 9.1명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진출사례, 올들어 미국 따돌리고 중국 최다

한편 45.1%의 벤처기업이 수출 또는 해외지사 설립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현재 해외진출지역은 중국(29.3%), 미국(20.5%), 일본(18.0%), 동남아(14.1%), 유럽(8.5%), 미국 실리콘밸리(2%) 의 순이었다. 특히 2002년까지 해외진출지역으로 미국이 앞섰으나, 2003년부터는 중국지역 진출이 미국 지역 진출보다 더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4, 그림5 참고)

해외 진출 형태는 수출방식(65.3%)이 주를 이루고 해외지사 설립(19.4%), 해외연구소 설립(0.6%), 해외기업투자(5.2%), 합작법인 설립(9.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5점 만점 평균 3.5)을 가장 먼저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금조달 및 재테크 등 자금관리의 어려움(평균 3.4), 필요인력의 조달 및 관리 어려움(평균 3.2), 업계내 과당경쟁 및 덩핑으로 인한 어려움(평균 3.1), 국내 영업 및 판로개척의 어려움(평균 3.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6 참고)

M&A · 사업매각 전망도 나와 업계 어려움 반영

향후 1~2년 내의 전략적 방안을 조사한 결과, 자체 개발한 기술 및 특허의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이 52.5%, 타사를 M&A하겠다는 기업이 36.8%, 주력업종을 전환하겠다는 기업이 2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9.0%), 타사에 의한 M&A희망(5.4%), 사업매각(1.4%) 등의 결과는 최근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벤처정책 수립의 합리적인 근거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동일항목 반복조사와 자료축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벤처산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정책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